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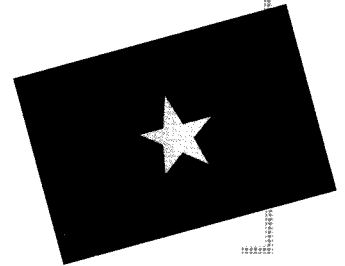
연·중·기·획
국가별 육계산업 현황



연·중·기·획
국가별 육계산업 현황

제9편

베트남의 육계산업



장 금순 전무
바이엘코리아(주)

베트남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나라이기도 하고 유사한 측면도 많은 나라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많은 갈등과 교류가 있고 문화·정치 외교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 오면서도 국가 민족적 자존심이 대단히 강해 그들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 온 것도 그렇고, 흰 옷을 즐겨 입는 의복문화, 자녀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도 아주 비슷하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립으로 남북으로 분단된 역사적 체험(아직 우리의 분단 역사는 해결되지 않았지만)도 같다.

두 나라가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된 계기인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던 1964년 미국을 도와 우리 병력이 첫 파견된 후 1973년에 철수할 때까지 전사자만도 5천명, 부상자 1만1천여명, 고엽자 피해자가 8만여명에 이르는 많은 희생을 치렀으나 결국 1975년에 공산주의의 승리로 종전이 되는 바람에 그 희생의 가치를 제대로 빛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전쟁에 대한 참여는 우리 국내 사정에 여러 측면으로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건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로부터 불과 13년이 흐른 1988년에 직접 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1992년에 양국간에 외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그 후 양국 정상들이 수 차례 상대국을 방문하며 교역이 활발하게 증진되었다. 1992년에 이미 양국간의 교역액이 4억9천만불(수출 4억3천만불, 수입 6천만불)에 이르렀고, 2008년에는 무려 98억불(수출 78억불, 수입 20억불)로 20배나 성장했다. 이제 두 나라 사이에 국제 결혼도 많이 이루어지고,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고 있어 전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 축산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료사업이나 농장이 현지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아직 그 수준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겠지만 베트남의 육계산업에 대한 소개를 해 보고자 한다.

1. 베트남의 일반 이야기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열대 기후

의 나라이다. 지형이 남북으로 길쭉한데 그 길이가 2,000km에 이른다. 국토의 넓이는 329,566평방km에 이르고 인구는 7천8백만명이며 그 중 80%가 농업 및 그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농업생산성은 연평균 4% 성장했고, 국민총생산액의 25%를 차지하며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인 쌀의 생산은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급성장했다. 축산물은 농산물 생산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도에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은 32.4kg이었다. 이 중에서 가금육 소비량은 5~5.5kg이고 달걀은 53.3개를 소비했으며, 우유는 0.5ℓ를 소비했다. 식육 생산의 77%는 돼지고기이며, 가금육은 16%, 쇠고기(버팔로 포함)는 7%를 차지했다.

베트남에서의 가축 및 가금은 촌락 생활 구성 요소의 하나이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시골 사람들은 여기서 현금도 마련하고 값싼 동물성 단백질을 조달하고 있다.

2. 아직 재래 토종닭 위주인 베트남의 양계산업

베트남의 가금 사육수수는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연평균 9.5%에 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도의 가금 사육 수수는 약 1억9천5백만수에 달했고, 이는 1990년 대비 두 배의 성장을 보인 것이다. 2000년도의 가금류 총생산은 27만톤으로서 1990년 대비 1.5배나 되는 양이다.

전국의 가금 사육수수는 비교적 많은 편이



시골서 결혼식을 위해 닭을 잡는 모습

나 알이나 가금육 생산량은 아직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전체 사육수수의 약 75%는 농가에서 몇 마리씩 키우는 재래종이기 때문이다. 사육규모는 가구당 10~20수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사료도 주로 자급자족하고 있다.

베트남 토종닭의 생산성은 중간 정도이나 그 차이가 꽤 심한 편이다. 5개월 동안 사육한 토종 육계의 체중이 겨우 1.3~1.5kg 밖에 되지 않으며, 토종 산란계는 일년에 70~80개 산란하는 정도이다. 사육수수당 연간 고기 생산량은 0.8kg에서 2.1kg 정도로 차이가 많으며 산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아서 9.9개에서 25.5개 정도이다.

닭의 타고난 생산 능력이 취약하여 생산성은 낮으며 영양관리나 교잡 육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외래 닭보다 토종 닭고기가 더 맛있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관념 때문에 소비자들의 토종 닭고기 선호 취향을 맞춰주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토종 닭 생산량이 늘어났다.

토종닭은 다양한 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다

양한 품종이 있다. 베트남의 지역에 따라 10종 이상의 재래종이나 토종닭이 사육되고 있다. 그러한 분위기가 베트남의 닭 육종이 진취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재래종을 중심으로 하여 보수적이게 만들었다.

가장 많이 기르는 품종은 북부 지방에서 주로 사육되는 리(Ri)와 남부에서 주로 사육되는 타 방(Ta vang)과 타우 방(Tau vang)이다. 이들 모두 겸용종이고 성장이 더디지만 먹이를 스스로 찾아먹고 열대지방 더운 기후에 잘 견디면서 살기에 적합한 품종이다. 이 품종들은 질병이나 기생충에 대해서도 강하다.

소비자들은 깃털과 피부가 황색인 품종을 선호한다. 또는 베트남에서 자주 있는 고사를 지내거나 제레나 가족선물을 할 때에는 특별한 생김새의 닭을 선호한다.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사육되는 품종들도 있는데, 그 예로써 투계용인 '최(Choi)' 나 '트레(Tre)', 노인이나 환자의 보신용으로 선호되는 '악(Ac)' 이라는 품종을 들 수 있다.

최근 수년 동안 다른 겸용종이 수입되기도 했다. 중국에서 수입된 탐호양(Tamhoang)과 호아 루옹 푸옹(Hoa Luong Phuong)이나 일본에서 수입된 나고야(Nagoya), 프랑스에서 수입된 사소(Sasso) 등이 있다. 그것들은 대부분 재래종과 교잡을 하는데 쓰여졌다. 달걀이나 닭고기의 맛을 재래종 같이 좋게 유지하면서도 성장률이나 정육률은 놀랄 만큼 개선시킨 알원(RI)이나 비티원(BT1) 같은 교잡종들이 그 예이다.

베트남 어느 시골마을을 가도 닭을 키우고 있으며 전국 사육수수의 75%는 전통적인 여

전에서 키워지고 있다. 시골 사람들은 닭을 놓아 기르거나, 작은 닭장에서 약간의 집약적 방법 등으로 키우고 있으며, 제대로 된 집약적인 방법으로 사육하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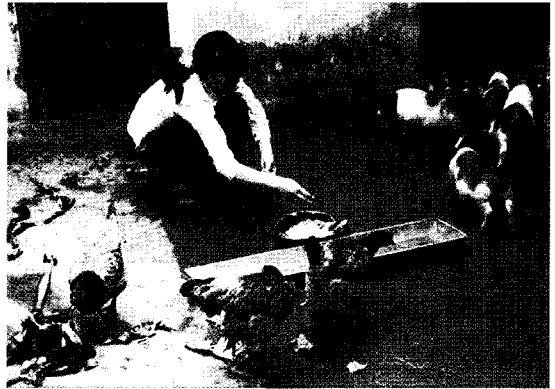
베트남에서의 닭을 키우는 집은 흔히 돼지나 물고기도 같이 키우는 경우가 많다. 양어-양계-양돈을 함께 사육하는 것이 가장 수익성 있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닭을 키우고 있으나 겨우 몇 마리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그들이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먹이로 키운다. 오리나 거위, 메추라기 등 다른 가금류도 역시 시골 마을에서 키우고 있다. 작은 규모의 가금류를 키우고 관리하는 것은 여인들이나 어린이들의 몫이다.

연중 사육 규모는 우리나라처럼 시기별 소비량 변화에 따라 차이가 난다. 최성수기는 우리나라가 삼복 더위를 중심으로 한 여름철인 것과는 다르게 베트남의 신년인 음력 설날을 중심으로 한 12월에서 2월 사이이다. 이때에 닭고기를 먹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닭고기 소비량과 가격이 최고조에 달한다.

3. 산업화된 베트남의 최근 육계산업

위에서 언급했듯이 베트남의 육계산업은 주로 작은 농가에서 재래 토종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조금 더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는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물론 아직 산업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정부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그



마당에서 닭과 돼지를 키우는 소녀

현황을 어렵잡아 볼 수 있겠다.

닭고기 생산량은 2004년에 14만2천톤 정도였는데 2008년에는 18만8천톤으로 32% 성장했다. 도계수수료 보면 2008년도에 일반 육계(백색계) 2천5백만수, 토종닭(유색계) 3천8백만수 정도로 추정된다(〈표 1〉 참조).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04년에 10.3kg이었는데 2008년에는 14.8kg으로 44%나 늘어나 우리나라 소비 수준과 비슷하다. 이는 2000년 대비 거의 3배나 증가한 양이다(〈표 2〉 참조).

통계에 반영되는 등록된 농가수는 2004년에 751개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1,971개로 2.6배 늘어나 초기 산업화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농장의 규모도 아직 작아서 등록된 농장이라 해도 7천~1만수 규모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70년대 말 정도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표 3〉 참조).

초생추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외래 육계(백색계)가 7,000~10,000동(베트남 화폐 단위, 대략 우리 화폐의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할 수 있다.)

〈표 1〉 베트남의 닭고기 생산량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톤	142,380	144,855	155,952	161,442	187,689
총수수(1000수)	71,000	72,000	78,000	81,000	94,000
육계(1,000수)	32,000	32,000	35,000	36,000	42,000
토종닭(1,000수)	39,000	40,000	43,000	45,000	52,000

〈표 2〉 베트남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1kg	10.3	10.5	12.5	13.0	14.8

〈표 3〉 베트남 닭 사육 농가수 및 규모(등록된 농장)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장수	751	939	1,342	1,744	1,971
평균농장규모 (1,000수)	2~5	2~5	2~5	7~10	7~10

〈표 4〉 초생추 가격

(단위 : 베트남 동)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육계	8,000	10,000	9,000	7,000	8,000
토종닭	11,000	12,000	10,000	9,000	12,000

〈표 5〉 사료 가격

(단위 : 베트남 동/kg)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가격	5,400	5,700	6,500	7,000	7,200

정도이고 재래종은 더 비싸서 9,000~12,000 동 수준이다(〈표 4〉 참조).

사료 kg당 가격은 2004년도에 5,400동, 2008년에 7,200동 수준이었다(〈표 5〉 참조).

육계는 2004년에는 50일간 사육하여 2.4kg에 출하했고, 2008년에 와서는 45일간 사육하여 2.6kg에 출하했다. 토종닭은 2004년도에 72일간 길러 1.6kg에 판매하던 것을 2008년에 와서는 65일 동안만 길러 1.7kg에 판매했다(〈표 6〉, 〈표 7〉 참조). 사료요구율(2008년 기준)은 크게 개선되지도 않고 낮은

편이어서 육계의 경우 1.9, 토종닭의 경우 2.5 수준이었다(〈표 8〉 참조).

닭 생산비용은 육계의 경우 2005년도에 18,500동이던 것이 2008년도에는 20,800동으로 13% 증가했으나 토종닭은 2005년도에 26,000동이던 것이 2008년도에 27,500동으로 들어가서 6%만 증가했다. 육계에 비해서 토종닭에는 사료를 사 먹이는 양이 더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9〉 참조).

2008년도를 기준으로 판매 유통가격을 보면 육계의 경우에는 농장 출하가가 25,800

〈표 6〉 육계 사육 기간(일)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육계	50	50	47	45	45
토종닭	72	70	67	65	65

〈표 7〉 육계 출하 체중(kg)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육계	2.4	2.5	2.5	2.5	2.6
토종닭	1.6	1.6	1.6	1.7	1.7

〈표 8〉 사료요구율(FCR)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육계	2.0	2.0	2.0	1.9	1.9
토종닭	2.6	2.6	2.5	2.6	2.5

〈표 9〉 육계 생산 비용

(단위 : 베트남 동)

연도	2005	2006	2007	2008
육계	18,500	19,000	18,250	20,818
토종닭	26,000	26,500	27,000	27,500

〈표 10〉 닭 판매 가격

(단위 : 베트남 동)

연도		2005	2006	2007	2008
육계	농장출하가	25,500	26,000	27,000	25,800
	소비자가	27,000	28,000	29,500	33,200
토종닭	농장출하가	29,000	30,000	29,000	31,000
	소비자가	31,000	32,000	31,000	35,000

동, 소비자가격이 33,200동으로 생산자 수익 마진이 19%, 유통마진이 22%였다. 토종닭은 농장출하가 31,000동, 소비자가격이 35,000동으로 마진이 각각 모두 11%였다.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으며, 특히 토종닭의 경우에는 병아리 가격, 사료요구율, 출하체중 등에서 불리하여 그 수익성이 더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그러나 베트남 소비자들의 토종닭 선호도와 배합사료를 먹이기 보다는 농아먹이기 등의 방법과 맞물려서 일반 육계보다 더 많이

기르고 있는 것이다.

4. 질병과 관리(토종닭 중심으로)

가금질병은 베트남 전통 방식으로 사육하는 양계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이다.

뉴캐슬병이 닭의 폐사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질병이다. 뉴캐슬병은 상재 질병으로 연중 발생하며 특히 11월에서 3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실험실 진단에서 장친화성 강독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이 많이 확인된다. 가금

콜레라와 계두도 역시 흔한 질병이다. 뉴캐슬 병은 백신접종으로 예방하고 있으며, 가끔 콜레라는 재래식 사육 농가들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질병이 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가금 사육자가 주요 전염병(우선적으로 뉴캐슬병)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라소타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 주를 사용하여 예방백신을 생산해 오다가 최근에는 호주 I-2형 독주로부터 개발해낸 내열성 독주를 사용해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 이 예방백신은 사육농가로부터 환영을 받았는데 질병 방어 효과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금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사용이 늘었다. 백신 접종으로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뉴캐슬병 발생률은 백신이 얼마나 공급이 되고 농가에서 얼마나 잘 접종하느냐에 따라 달랐다. 예방접종 권장 운동을 자주한 덕분에 많은 뉴캐슬병 발생은 급감했고 닭 사육수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가금콜레라는 연중 발생이 보고되고 있지만 특히 우기가 시작될 때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병원성 파스튜렐라 멀토시다 균의 국내형 혈청형이 분리되기도 했다. 계두도 역시 어린 병아리에서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 질병은 오랜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발병하고 병아리와 어린 닭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전염병 이외에도 기생충 감염이나 영양 결핍증도 문제였다. 재래식 사육 농장에서는 기생충 감염이 심했다. 이로 인해 소화기 장애



닭시장에서 닭의 시 감염 여부 검사

가 유발되고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토종닭 모이(사료)는 대부분이 그 주위 자연환경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을 찾아 먹는 것이다.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저녁에 벼나 구입한 배합사료를 준다. 벼나 배합사료를 보충해 주는 양은 농가의 경제적 사정이나 닭의 나이, 생산 단계, 축산물 시세에 따라서 닭의 전체 섭취량의 10%에서 30% 정도로 차이가 난다. 충분한 사료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률이나 생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영양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는데 이는 지렁이 사육법이 개발된 덕택이다. 각 농가에서 반추류나 돼지의 배설물과 볏짚 썩힌 것을 혼합하여 그 속에서 지렁이를 키우는 기술이다. 각 농가에서 벼, 옥수수, 땅콩 등을 저장하는 기술의 발달로 곰팡이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5. 최근의 이슈들

최근에는 집약적 사육 형태도 늘어나고 있으며 닭고기 소비 행태도 부분육이나 가공 제

품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튀기거나 구운 닭고기 판매도 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농아떡인 토종닭을 선호하고 주로 통닭으로 소비하고 있다. 이는 70~80년대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며 토종닭을 선호하는 심리상태와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는 것 등 우리나라 소비자들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양축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줄 것을 적극 종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냉동 닭고기 수입을 막기 위한 관세 정책을 쓰고 있으나 국제적인 조류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받아들여 나가고 있다.

특이한 것은 항생제 사용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양계산업의 발달 수준으로 볼 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소규모로 토종닭을 키우는 베트남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육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나, 이는 반대로 양계업이 산업화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생산성은 그리 좋지 않은데 이러한 정책을 지속하면 베트남 양계산업은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것이고, 자유무역협정 등의 여파로 수입을 통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국가가 국내 산업을 도와 줄 방법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에서 2009년 9월에 치료제 및 사료첨가로 금지시킨 제품들과 제한적 사용을 지시한 제품들을 보면 베트남 정부의 약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관리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선진국의 움직임

에 따라 국가에서 갑자기 규제 발표를 하게 된 것 같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 전에 사용금지된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이나 후라졸리돈(Furazolidon)이 이번에서야 사용금지가 되었고,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오픈록사신(Ofloxacin), 카바독스(Carbadox)도 이번에 사용금지 되었다. 특히 하계도 인산 타일로스인(Tylosin phosphate)도 사용이 금지되었다.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주요 약제로는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버지니아마이신(Virginiamycin), 모넨신(Monensin), 살리노마이신(Salinomycin), 암푸롤리움(Amprolium) 등이 있는데, 이 면면(특히 항콕시둠제 사용제한 조치)을 보면 베트남 정부는 양계산업을 거의 포기하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릴 것 같다.

6. 마치며

베트남의 양계산업은 우리나라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지나친 토종닭 선호와 생산자들의 맞장구로 생산성 개선의 한계와 정부의 정책적 착오로 인해 제대로 현대적 양계산업으로 발전하기는 힘들 것 같다. 결국 베트남인들의 경제적 소득이 늘어가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났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수입육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 